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9. 13.(금) 14:00
○ 장　　소 : 구로구의회 6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종태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김재희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7명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상지는 호주 시드니로 정했으며,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의원 10명, 직원 5명으로 총 15명이며 출장 여비는 총 5,711만 5,000원입니다.

우리구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5%로 전국 도시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아서 대표적인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또한 이민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에 속하며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원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

되어 이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구의 다문화 정책과 사업을 비교 시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블랙타운시의회와 시청을 방문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행정서비스 사업, 이민자 일자리지원 위한 사업 등 관련 지원 정책과 아동보육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 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우리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 외국인 구성 비율이 높은 윌로비시 내에 있는 모자이크 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 주민을 위한 원스톱 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주민 화합 및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아동보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성 안토니 가족 돌봄기관을 방문해서 청소년,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시찰하고, 피그트리 유아교육센터를 방문하여 호주 시드니 아동 보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뉴타운 네이버후드센터에서는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기관 운영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구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체육시설인 블랙타운 시민체육센터와 도심 공원을 재개발하여 유아 놀이공원으로 조성한 울라바 공원,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자연친화적 주민 이용 공간으로 조성된 브릭핏 링 워크와 펜리스 네핀 리버워트크, 탄소중립과 친환경 주거 환경을 위해 조성된 뉴잉턴태양열 주택마을과 리턴 앤 언 재활용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일정과 방문기관 정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비를 산출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이중 숙박비는 할인정액으로 상한액의 85%로 산정,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산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원들과의 사전 간담회와 전체회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대상지 및 방문 기관이 결

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다문화 정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동보육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주민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보다 발전적인 구로구 정책과 행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의원들이 평소 관심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사무국 직원과 함께 관련된 기관과 현장에 대해서 사전 연구와 검토를 통해 다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2023년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조하여 대상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일부 방문 기관을 섭외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지난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과제 개발과 현지 조사를 위해 함께 동행하는 정책지원관의 수를 최소화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4년 공무국외출장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면 외유성 출장이 아닌가 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만큼은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태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꼭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덕위원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종태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송영덕위원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지지난, 어쨌든 시

기부터 계속 공무국외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전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개선된 점은 이 공무출장보고를 여행사 직원이 하다가 위원장님이 나와서 최초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아까 정책지원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거냐, 라고 여쭤봤고 그전에 정책지원팀장한테도 인수인계를 받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다 제대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의할 때마다 담당자분이 바뀌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거 비행기표 예약돼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예약되어 있습니다.

○송영덕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죠. 심의를 통과 안 했는데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게 맞나요? 심의를 충분히 비행기표를 더 싸게 구할 수도 있고 이 계획을 충분히 준비해서 잡았다면 6개월 전에라도 심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출발 며칠 전이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지금 한 5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덕위원

네. 그러니까요. 항상 출발 한 달 뭐, 이 정도 남은 기간에 소집해가지고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예매 다 끝내놓고 여행사 계획 다 해놓고 나서 보고하고 있는 이 방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이거는 지금 의원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매번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무국 잘못이다. 지금 김철수 위원장님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무국 직원들이 똑바로 인수인계를 했으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무국 직원들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속기록에 삭제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 그걸 읽어보고 개선 의지가 갖고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제입니다. 매번 지적을 해도 개선될 의지가 없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출장 가시는 의원들이 열 분이에요. 지난번에는 4명이었고요.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관심사가 달라서 관심사별로 소그룹으로 운영해서 5명, 6명. 한 팀은 A팀은 나는 미국의 어떤 제도를 보겠다, 그럼

또 다른 5명, 6명 B그룹, C그룹은 또 다른 나라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각자 팀을 이루어서 자체적으로 가는 거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많은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어떤 민주당하고 그때 어떤 국힘하고의 갈등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안 가기로 해가지고 4명이 달랑 가는 그거는 사실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때 나라가 어디였었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체코.

○송영덕위원

체코였죠. 체코 가서 지금 구로구 망신시키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사전에 의원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다 예약해놓고 다 줄줄이 다 인원 축소돼서 취소하고 무슨 그게 상대방도 인원수에 맞춰서 다 준비했을 텐데 무슨 망신입니까? 근데 이번에도 지금 계획을 지금 우리 회의를 일주일 전인가 잡았다가 일주일을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미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어떤 갈등 때문에 또 안 가겠다고 해서 지금 또 계획을 급히 부랴부랴 수정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근데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의원님들께서 불참 의사를 밝히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로구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이 이런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본인이 정말로 이 국외 출장 어디 가서 꼭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꼭 보고 오겠다, 배워와야 되겠다, 라는 거를 본인이 그 과제를 산출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를 했다면……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가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정책과제를 제시하셨고요.

○송영덕위원

지금 가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알겠습니다.

○송영덕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보는 거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송영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준비됐던 분이라면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든 안 됐든 부결이 됐든 안 됐든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의 변동이나 계획의 변동을 초래하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작년에 간다고 했다가 그 어떤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해서 안 간다고 단체로 빠진 민주당 의원들도 심각한 자질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정말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저도 속 시원하게 그러면 이번에 가서 잘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또 지금 공무출장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구로구 의원 중에 지금 10명밖에 안 가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축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은 10명의 의원이 가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또 5명이 가요. 이러면서 지금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죠? 비율적으로 이거 안 맞는 인원이에요. 10명 가는데 5명 가면 안 되죠. 3명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저는 정책지원관 지금 2명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명으로 줄이고 주무관도 줄이고 팀장님이 가셔야 된다면 팀장님 한 명, 주무관 1명, 정책지원관 1명 최소 3명으로 가시는 게 지금 10명의 의원 비율을 봤을 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지에 대해서도 지금 블랙타운 시티를 선정하셨는데 이게 사실 호주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는 넓지만 볼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방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왜 블랙타운 시티를 선정하셨을까,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블랙타운 시티로 처음에 딱 검색할 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국립공원이 나와요. 이것도 관광지예요. 그러면 아까 의원님은 그런 일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도 검색해 보면 다 있는 관광지 인근 지역이고 그 전에 이탈리아 출장을 갔을 때도 가셨던 지역 다 관광지, 여기는 지금 국립

공원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에서 보고하신 거 제가 회의록으로 봤지만 굉장히 짧게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 심의위원회 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거는 의원이 본회의 때 가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린 적이 없어요. 구민들 앞에서 정말로 성과 있고 내실 있게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의원들이 주민들 앞에서 그걸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했더니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본회의 때 발표할게, 라고 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잘 갔다 왔다 인사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갔다 와서 쓰신 보고서가 굉장히 여기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구나, 기존에는 여행사에서 다 보고서도 써주고 정책지원관이 다 써주고 한 보고서들이었는데 옛날 보고서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정말 잘 갔다 오셨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의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건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동안 지금 한 3대 의원째 제가 공무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번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보지만 사무국의 개선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팀장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반박을 하셔도 좋고 그동안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개선된 게 있으면 아니다, 이건 개선된 거다, 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일단은 공무국외 출장에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팀장으로서 총괄 책임으로 가는 거고 기존에는 국장님도 항상 포함이 돼 있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은 제외하는 걸로 가고 나머지 사진이나 기록 담당하는 직원 1명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사실은 관련 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구청에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8명, 7명도 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5명 가는 거는 그렇게 과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구로구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의원 대 수행 직원 간의 비율이 있어요. 지금 의원 대 수행 직원이 50%면 그게 과도하다, 라는 겁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송영덕위원

그게 수행이라는 말이 그렇게 걸리면 수행을 빼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는 직원의 비율이 과도하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역할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 분장도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덕위원

업무 분담은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문제겠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그리고 국립공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블루마운틴입니다. 저희가 블랙타운시를 가는 거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간다고 저희가 계획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덕위원

기재 안 하고 갈 수 있죠, 그거야.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지금 계획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저기 옛날에 무슨 관광지 간다고 정하고 관광지 갔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를 검색했을 때 그 안에 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겠죠.

어쨌든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이렇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러면 예약 다 비행기표 다 예약해놓고 또 의원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취소해서 또 위약금 내고 이런 시스템,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요. 저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 더 빨리 대상지 선정을 하고 기관 섭외도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그런 예약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난번 팀장, 그 지난번 팀장도 했는데 안 고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점을 업무를 보면서 산출이 됐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안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덕위원

정말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송영덕위원

그러고나서 또 다음 해는 다른 분이 와서 못 들었다고, 몰랐다고 개선하겠다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에도.

○송영덕위원

일단 제가 너무 오래 마이크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저도 우리 위원님처럼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지역을 좀 탐색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우리 구로구와 연계하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에 가실 때는 조금 제가 드린 의견을 첨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는 행정 분야, 다문화 정책, 아동, 장애인 복지, 지역 복지 서비스, 환경은, 환경이나 도시재생 이런 거는 빼고요. 이런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치구나 전국의 도시 단위들의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가져가는 일반적인 정책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은 매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22년도 거는 이제 그전엔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어느 시나 어느 도시 해외를 갈 때면 늘상 다문화

저희는 이제 다문화 도시이기는 하니까 그건 빼고라도 아동, 장애인 복지는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하면 경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저희도 역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는 좀 특색 있게 앞서가는 정책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받아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이번에 제안해 주셨던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보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조례도 발의했고 또 지금 기후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또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의제화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동, 장애인 복지 이런 그러니까 늘상 해왔던 정책보다는 저는 이번에 좀 하나 제안하고 싶었던 건 지역 돌봄 통합법이 올해 발의됐고 내년에 법으로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돌봄 통합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우리도 곧 내년에 법이 발의돼서 정책으로 시나 도, 그다음에 구도 정책 제안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그렇게 진행되는 법으로 발의됐으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선견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텐데 저는 호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되었던 아동,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었었고 우리 구도 사실은 다른 타구, 타 도시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진행하고 새로운 법이 입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견지 국외 출장에 좀 제안해보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했던 지역통합돌봄법은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내년에라도 이렇게 또 국외출장 계획이 있다면 앞서가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먼저 가서 공부하고 해외 탐방을 통해서 바로 정책에 도입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우리 송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조금 느꼈던 바인데 결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저희의 역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의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죠. 심사위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통합돌봄 관련해가지고 호주의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 그래도 센터링크라고 지역 복지 체계를 원스톱으로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랑 관련 대사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여기가 섭외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 부분 살펴봤는데 조금 아쉽게도 기관 협의가 불발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현장 그런 곳을 탐색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아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저희 나라도 원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아 기관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보통 보육 기관에서 장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때나. 그리고 이번에 그런 아동 보육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셨을 때도 그래서 특별히 장애아 돌봄 기관들을 조금 탐색해서 저희가 섭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랙타운 시티 같은 경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그런 행정 정책이나 시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했고 또 윌로비시에 있는 모자이크 센터는 저희 정책지원관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낸 기관인데 여기가 직원은 2명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자원들과 연계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적응하고 녹아내리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화합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섭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주가 굉장히 복지나 이런 정책들이 잘 돼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그런 정책들에 포인트를 둬서 이번에는 그런 기관들을 섭외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년도나 차후에는 그런 저희 나라에 없는 정책이나 특별한 정책들을 찾아서 나라를 선정하고 기관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질의하고 대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정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일 전에 티켓팅까지 마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심사를 거의 형식상 절차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이 구조를 바꾸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여쭙고 싶고요. 사무국이 물론 인수인계 잘하고 그러셔야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조례 부칙이라도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사무국 내에서 이것이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비율에 대해서도 적정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어쨌든 의원님들이 10명이 가시는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위해서 5명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정책지원관은 정책에 대한 그런 사전 검토나 그 후에 정책적으로 구로구 정책에 반영될 때 그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황혜정위원

그거를 의원님이 해주셔야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최종적인 정책 반영은 의원님이 하시지만 이거를 또 지원하는 역할은 정책지원관입니다.

○황혜정위원

자, 봅시다. 의원님이 다녀오셔서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국외출장 자체에도 지금 탄소위기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심사 기준에서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인터넷 이건 말도 안 되고 최소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 이제 기존에 작업을 하는 거는 하셨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비행기 자체를 어쨌든 적게 타야 되는 거란 상황, 이런 거를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특히 사실 지자체부터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공무출장을 가시는데 거기에 의원들 공무출장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이유로, 의정 지원을 이유로 그렇게 또 더 많이 가신다,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의원님들이 지금 일단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신 것이 맞다고 판단을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다녀오셔서 이거를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현지에 가지 않고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지금 사무국에서 좀 더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단순한 그런 출장 수행 역할이 아니라 저희가 이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전에도 정말 조사해야 되는 자료들도 많고요. 다녀와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분야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정말 최소한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했다는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정위원

최소한인지 모르겠지만 50% 이렇게 유지해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더 조정할 여지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 5명 과하긴 하거든요. 역할 중복되지 않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역할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황혜정위원

기존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다른 자치구 사례랑 비교하더라도 이거 지금 과한 거 맞습니다. 50%. 좀 더 줄여서 가실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기존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가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덕위원

혹시 송치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치경위원

저는 지금 의회사무국이 50% 인원이 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냐, 라는 의견

을 주셨는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정말 여기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의결이 돼서 그러면 선진지 가서 보고 오셔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안 가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의원님이 전체 몇 분이시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전체 열여섯 분이십니다.

○송치경위원

지금 열여섯 분 중에 열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규모가 작든 크든 할 일들은 양의 문제지 그 역할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5명이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가서 보고 견학하시고 많은 것을 가져오셔서 우리 구에 알맞은 정책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더 이런 기회에 더 많이 가셔서 보고 오시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님이 정보도 많으시고 그러신지 더 가려다가 또 취소하신 분이 계신지 뉘앙스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제 느낌이.

의원님들이 정말 자기 역할. 이렇게 가셔서 배워오시고 우리 의정에 반영하는 것들도 일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다 안 간다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신 위원님께서도 두 번째 공무출장 회의에 참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구로구의회 의원이나 사무국이 공무출장심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계획서 내면 통과시켜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그래서 맨날 관행대로 하던 대로 준비하고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공무출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부결시킨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재작년엔가 아마 서울시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서울시 의원들한테 경고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보내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목표나 효과가 불분명한 의원

들 공무출장 가는데 비용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의원들한테 경고하고 사무국에 경고하는 의미로 이번 출장을, 이번 출장도 작년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보낼까 말까로 그렇게 많은 논의를 치열하게 했었는데 만약에 통과됐는데 4명이 갈 줄 알았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결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또 10명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부결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도 보내드려야 조금이라도 보고 오는 게 배우고 오는 게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주셨다면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한번 부결을 시켜서 사무국도 정신 차리고 개선점을 찾고 의원님들도 이게 당연히 그냥 계획 세우면 해외여행 가듯이 부담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공무출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부결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멀쩡한 목이 여기에만 오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여기가 터가.

근데 작년에 4명 이거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예요. 작년에 미참석 의원들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때 사무국에서 안내받았던 것들이 1인 기준에서 반납액이 404만 6,640원이었어요. 작년 기록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박종호주무관

아까 드렸던 것.

○송영덕위원

아니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참석 의원 7명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1인당 반납액을 404만 6,640원

○박종호주무관

그것은 항공료 포함된 겁니다.

○송영덕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 포함해서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돈 11월 30일까지 받으셨나요?

○박종호주무관

받은 내역을 드린 겁니다.

○송영덕위원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못 받으셨죠? 11월 30일까지.

○박종호주무관

받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송영덕위원

의원별 지금 명세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박종호주무관

의원별 명세표는 지금 시스템 담당자가 없어서 조회를 못합니다.

○송영덕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항목이 이렇게 통합 항목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운임료에 관해서는 1인당 66만 6,000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 나뉜 거를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박종호주무관

네.

○송영덕위원

이걸 한번 그러면 합쳐볼 수 있을까요? 항목별로. 근데 이거는 1인당으로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좀 항목별로 정리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운임 얼마.

○위원장 안종태

지금 그 부분은 모아서 직접 부위원장님이 한번 받았으면 하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는 거니까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송영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 간에 개인별로 지금 반납을 한 게 아니라 대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의원별로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겠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대납한 부분은 없습니다.

○송영덕위원

일단 팀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돌았던 얘기기 때문에 누가 몇 명 것을 대납하기로 했다, 누가 세 명분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한 분이 그렇게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송영덕위원

네, 어쨌든 근데 구 의원 중에서는 책임이나 또

○박종호주무관

의원들이 개인여비 입금한 내역, 일시랑 성함……

○송영덕위원

네, 자료 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확인하고자 제가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작년에도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허탈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개선된 거는 없다는 거고요. 정책적인 연계를 말씀하시지만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러면 갔다 와서 저는 우리 본회의 때 보고 내용이나 아니면 보고서 작성하신 거를 보고 제가 만족할 만한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럽까지 가서 보고 쓸 만한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갔다 와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신 게 이거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그렇습니다.

○송영덕위원

이것도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끼워맞춘 거지 제목을 거기 가서 거기서 특별하게 운영되는 거를 우리구에 안 하던 거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공무출장의 모습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지원관이 꼭 2명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의원들 대신에 정책지원관이 자료 수집하고 갔다 와서 의원들 대신에 정책지원관이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것이지.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송영덕위원

네, 일단 팀장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번 안건은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구로구 주민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구로구 의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무국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부결을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일단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당일 아침에 출발하면 당일 아침에 취소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조차 정말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의원님들의 그런 정치적인 의사표현이셨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가시는 거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의회를 열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참여 의사를 좀 더 확실하게 여쭤보고 그래서 심의회에 이 명단을 확정해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관련 기관이나 정책에 대해서 사무국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까 기관 섭외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나……

○송영덕위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구로구의 이미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쨌든 지역 시민들이 있고 그래서 구로구의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례 내용 알고 계세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그 조례가 작동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예산이 배정된 게 없어요. 구로구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조례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뭘 해외에 나가가지고 탄소중립을 뭘 배우고 와요.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그 조례대로 동작하도록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조례가 만들어진, 그 탄소중립을 어떤 의원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길래 의원이 실적 또 만들려고 그 조례 만드는데 그걸 왜 그걸 시민단체가 거기 지금 동조하느냐, 그런데 어쨌든 시민단체가 동조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그러면 의원이 책임지고 그 조례를 끌고 가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그럼 같이 만든 시민단체가 그 조례를

제대로 끌고 가든 해야 되는데 구로구는 여태까지 만들어진 조례 중에 예산 제대로 배정돼가지고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조례가 없어요. 뭘 해외에 가서 탄소중립을 배워가지고 와요. 구로구에서 만든 조례부터 제대로 동작하게 해야죠. 그거는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한테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해외 가서 안 보셔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자료 수집하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방치돼 있어요. 탄소중립 조례가. 사람들한테는 단어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위원장 안종태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응답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가서 보고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더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출장 계획서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기준표를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첫 번째 항목은 출장의 필요성입니다. 이 공무국외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장 국가, 출장 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섭외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이 출장에 참여하는 의원이나 직원들이 출장 목적이나 업무 분장에 따라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장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도 저희가 휴일 빼고 주중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장 경비는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랑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일단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의견 하나 내려고요. 사실은 서로 의견에서 오가고 얘기했던 것 중에 앞에 의견이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이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다, 뭔가 계획 여행 일정이 있기 전에. 그런데 그런 항목들이 다음에는 심사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항목이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히 이런 심사 기준이 구로구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송영덕위원

구로구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사실은 출장 계획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출장 가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항목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준비할 때 그러면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무국외출장 심사표는 저희 조례에 별지로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려면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송영덕위원

비용에 관한 거를 지금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비용이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호주인데 그러면 비용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중 환전으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달러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영덕위원

달러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행사에 돈을 지급할 때 달러로 하시는 방식인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달러는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등 보수 지침에 따르면 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서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원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영덕위원

달러로 해서 그냥 어쨌든 호주 달러로 이중 환전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그렇습니다.

○송영덕위원

이거 대행사 선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대행사랑 똑같은 곳인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출장사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했고요. 출장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곳은 아닙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 항상 공개모집했지만 이제 선정은 계속 같은 곳이 해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지난번 출장사는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영덕위원

우리 구로구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내용에 지금 심의를 언제 해야 된다, 그런 게 들어가 있던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심의는 의장님께 의원님들께서 출장 계획서를 출국 전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의장님께서는 바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덕위원

그게 몇 조이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11조입니다.

○송영덕위원

11조 1항에 출국 40일 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장한테 제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조의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심의회의를 당겨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40일 전을 예를 들어 6개월 전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좀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운영위원장 김철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덕위원

의원들이 꼭 의견을 나눠주셔서 저희 심의위원회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어쨌든 그 비용 예산 잡아놓은 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틀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 중에 예산 계산한 방식이 어디 나오죠? 저희 주신 자료 중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계산 방법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송영덕위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서 숙박료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종태

6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미 여비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송영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틀렸던 적이 한 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심의위원회 와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 틀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이 자료에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아니요. 계획서에 일비·식비·숙박비·항공운임.

○송영덕위원

제가 미리 뽑아온 자료하고 여기서 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방 배정은 매번 여쭤봤던 건데 방 배정은 2인 1실로 돼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네, 2인 1실입니다.

○송영덕위원

의장님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의장님은 단독 룸입니다.

○송영덕위원

의장님 빼고는 다 2인 1실인가요? 또 1실 혼자서 쓰시는 분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남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분들은 또 다섯 분이시라서 한 분은 불가피하게 1인실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송영덕위원

그 분이 곽윤희 전 의장님이신가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영덕위원

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 좀 심의를 거치고 나서 티켓팅을 한다든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제가 내년도에 반드시,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저도 지금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그런 점을 또 많이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해마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는 직원들도 8명, 7명, 6명 그래서 올해는 5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계속 더 좋은 기관을 발굴하려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덕위원

근데 추가적으로 의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전에도 당연히 과도하게 직원들이 많이 배정이 됐었고요. 구로구 사무국이 전통적으로. 그중에는 의원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일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가면 자기 가방도 안 들고 다녀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그 가방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인원을 더 배정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줄여왔는데 그런 지적들을 하니까 그래도 전에는 심의위원들이 이거 너무 의원 수행인원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팀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작년보다는 줄였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시는 것도 줄였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장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송영덕위원

어쨌든 이 인원은 분명히 더 많은 의원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직원이 배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는 인원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우리 구로구의회의 공무출장의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을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정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고생 고생해서 의회사무국이 주도하는 느낌으로 의원님들이 물론 이번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단체 관광 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의원님 개별 개별로 어떤 내가 지금 의정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다 자료 찾아봤는데 어떤 부분은 현장을 가서 좀 더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의원 중심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단체 관광의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조례 개정 이번에 하셨던데 좀 더 반영을 해서 개정하셔서 다음 의원님들도 좀 이런 어떤 누가 보기에 뭔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공무국외출장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회의를 많이 여셨고요, 간담회도 많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기관 섭외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제로 섭외를 많이 했

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과제 제시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태

이번에는 저번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사무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결을 투표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지를 조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방법에 대해 묻는 위원 있음)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원래 투표 원칙은 무기명 약식 투표입니다.

○송영덕위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원혜진

규정은 없지만 보통 위원회 운영할 때는 그 위원회 자체에서 정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종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집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

○참석위원 6인

안종태	**송영덕**	**김유권**
김지숙	**송치경**	**황혜정**